

다문화 가족이 행복한 충남¹⁾

모선희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다문화 가족 이해하기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수가 가시적으로 증가하면서 2010년 국내거주 외국인인 123만 명을 넘어서 우리 사회는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다문화 가족이란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는 2010년 1월 18.2만 명이며, 2015년에 26.6만 명, 2020년 35.4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남도의 2009년 말 결혼이민자는 8,003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조선족) 3,736명, 베트남 2,317명, 필리핀 856명 순이며, 거주지역은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순이며 농촌거주가 60%를 넘고 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총 국제결혼 건수는 33,300 건으로 전체 결혼의 10.8%이며, 이 중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은 4분의 3이 넘고 특히 농림어업 종사 남성의 결혼 중 외국여성과의 결혼은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가족의 급증 추세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도 수립, 추진되고 있다.

여러 연구들에 나타난 다문화가족의 생활 실태 및 문제점은 크게 언어 및 문화적 적응,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 대인관계 및 사회적 편견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언어는 다문화 가족이 겪는 가장 대표적 문제이며 기후, 음식, 예절, 풍습 등 생활전반에 걸친 문화적 차이도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특히 한국의 가부장제적인 관습과 문화로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 며느리의 업무과중, 시부모의 간섭과 효 강요 등은 사회주의 국가와 모권이

1) 본 글은 필자가 책임으로 참여한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2008)의 일부 내용을 발췌·수정하고 보완하였음.

강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 아내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부당한 부분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둘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가족소득은 100만원 미만 21.3%, 100-200만원 38.4%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알 수 있다(2009 한국복지패널 월평균 가구소득 332.3만원). 셋째, 다문화가족은 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어려움으로 사교육비와 양육비용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자녀의 언어발달이 늦고 학년이 고학년이 될수록 학습능력 저하경향이 있고, 이는 학교부적응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시기의 정체감과 가치관 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넷째, 친척, 이웃과의 관계 및 사회적 편견문제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국적취득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당한 경험들이 있고 또한 주변의 이야기나 텔레비전 보도를 통한 이주여성들에 대한 편견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62.7%), 한국어(60.4%), 한국사회 적응교육(51.4%), 가족상담 및 교육(41.2%), 임신출산 지원(38.4%)으로 나타나며 직업훈련에 참여의향도 72.8%로 취업욕구도 높음을 알 수 있다²⁾. 이러한 다문화 가족들의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들은 일방적인 한국사회에의 동화를 요구하기 보다는 이들의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게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문화 및 사회생활에의 적응, 자녀양육 및 부부갈등, 경제적 빈곤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거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사회적 편견으로 소외될 경우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농촌의 출산율을 증가하여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지연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거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글로벌 인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그동안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중앙 및 지방정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각각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다문화가족 관련법으로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

2) 김승권 외 (2009).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법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이 있으나,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8937호)이 제정·시행되면서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민자와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2009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여성가족부가 간사부처로서 여러 부처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교육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 및 다문화 이해 제고를,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생활정착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어 교재개발 및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등 문화적응 지원을,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 및 국적 취득 등 업무지원과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및 이수제 도입을, 고용노동부는 결혼이민자 취업을 중점 지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의 중점 정책과제는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는 1단계 입국전 결혼준비기에서는 국제결혼 과정의 인권보호와 교육프로그램을, 2단계 입국초 가족관계 형성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 교육,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를, 3단계 자녀양육 및 정착기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을, 4단계 역량강화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자립 지원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 자녀지원, 직업교육 및 다문화인식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 159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충청남도도 15개 시·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사회복지관, 도서관, 농업기술센터, 여성의 전화, 다문화정책연구소 등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다문화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로 다문화가족부모모임, 이주여성모임, 출신국가별 자조모임, 배우자 자조모임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충남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조기정착을 위한 다문화어울림사업, 방문교육 및 법률지원서비스, 다국어포털 홈페이지(충남다올림) 운영, 책자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으로 결혼이민자의 체류불안문제 해소, 생활안정모색, 이들의 차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통합지원, 사회참여 촉진정책 등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 정책 중복 혹은 실시 기관 간 서비스 중복 문제, 결혼이민자의 개인특성 고려 부족, 결혼이

민자 개인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미흡, 보건·복지·가족 간 연계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이 행복한 충남 만들기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 온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 입장은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동화하여 통합하는데 있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정책을 비빔밥 문화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기존 가족과 다문화가족과의 융합을 마치 비빔밥이 여러 재료가 어우러져 특유한 맛을 만들어가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최근 들어 결혼이민자들의 급증 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탈북자가족, 외국유학생 등의 증가로 인하여 우리사회도 점차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대한 인식과 수용이 요구되고 있다. 즉, 다양한 민족, 문화, 언어, 습관을 각기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며 상호 공존하는 공생의 존재로 인식하는 시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 제도, 사회적 지원정책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욕구와 현실을 반영하여 부처별 역할 분담, 사업의 조정 등을 통해 좀 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민간, 민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다양하게 지원되는 사업 및 정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관련 부서와 사업제공 주체를 명확히 하여 유사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거점센터의 지위를 공고히 하며 네트워크 구축, 정보 및 프로그램 교류, 교육 지원 등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다문화가족 입장에서 이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수용·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 및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언어능력, 사회경제적 지위 등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역특색을 고려한 프로그램, 자활/자립 지원 프로그램(직업 및 영농교육) 등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다문화 지원정책은 결혼이민여성의 정착 및 적응에 초점이 맞추어 실시되다가 최근에는 자조모임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인권 및 사회적 지위, 결혼이민자 2세를 위한 지원 등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다문화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다문화 지원정책도 현재의 결혼이민자가족 중심에서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등도 포함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충남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제안을 몇 가지 하고자 한다. 먼저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화합을 위한 교육적 체험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교류센터의 설립이다. 다문화교류센터는 다양한 민족, 인종의 사회문화적 소개, 풍물 전시 등에 관한 교육 현장으로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일방적이지 않은 쌍방향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여 다문화를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센터를 구심 축으로 다문화가족의 각종 행사 및 자기역량 발휘를 할 수 있는 강좌개설, 다문화관련 공무원 및 관련기관 직원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촉구와 인력활용이 일부 실시되고 있으나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양한 가족이 등장하고 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이 작게는 마을 반상회 참여, 학부모 모임 등으로, 크게는 거주 외국인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자신의 주체적 존재를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능력개발, 자신감 및 자신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자여성 중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일정 수준의 조건을 갖춘 리더를 발굴하고 교육을 통해 학교보조교사, 자녀교육 교사, 관공서, 상담, 의료기관 등에서의 통역, 자조모임의 리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족 지원기관들의 인력, 재정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방안이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의 교육자,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의사, 간호사 및 의료직 전문가, 조리사, 이·미용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은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 중 교육관련 사업들은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인을 통한 상시적, 중·장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농촌 지역의 불편한 교통편, 장거리 이동 등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높은 각 면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기초적인 한국어교육 실시하고 교육교재, 강사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넷째, 충청남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의 복지 및 인권보장에 적극적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

적으로 다문화복지사를 지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전담하고 있으므로 이런 특화된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에 접목하는 노력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이 행복한 충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나의 문화성을 되돌아 보는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로 “다름”에 대한 편견이 많다. 즉, 장애인에 대한 편견, 노인에 대한 편견, 여성에 대한 편견,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 한 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 등등. 이 모든 것은 단지 나와 다를 뿐이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배우고, 받아들여서 상호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문화가족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충남 만들기 아닐까!!